‘최고의 지혜’ 하나로만 살자

(잠언 7:1~27)

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7.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9.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지혜’ 하나로만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최고의 지혜’ 하나로만 살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학문적인 지식과 다른 점은 생활 속에 적용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지식은 생활로부터 추상화되거나 괴리가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생활과 괴리가 있어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최고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최고의 지혜는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열등한 다른 모든 지혜는 기억하거나 염두에 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한 가지만으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지혜를 찾던 한 왕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서 나라의 모든 석학들과 신하들을 불러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혜를 모아보니 그 양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몇 권의 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지혜를 백성들이 읽고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으로 줄어든 지혜들을 보아도 여전히 너무 많아서 생활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장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아서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처음으로 인용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혜를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했던 왕의 생각 자체가 아주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지혜를 말하는 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은 결국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도 이 습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곱 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 가지만 되더라도 지키기 힘듭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두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한 가지도 지킬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다시 예화로 돌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한 문장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정말로 최고의 지혜일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다소 어리석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지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원한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인데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공짜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공짜의 삶입니다. 이 공짜의 삶이 성경적 언어로 은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꼭 신앙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도 공짜이고 외모도 공짜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도 공짜로 된 것입니다. 요새는 공기나 물도 돈을 들여야 하지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다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인간은 공짜로 시작해서 공짜로 살다가 공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서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최고의 지혜인양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의 원조 격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1850

년대에 영국의 새무얼 스마일즈(Samuel Smiles)가 쓴 “셀프헬프(self-help)”라는 책이 있습니다. ‘셀프헬프’는 자족(自足) 즉 스스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도우라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근면하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 문제는 나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길 충분한 시간이 없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헝그리 정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곧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세상 것으로 배불러 보겠다고 하는 것이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돈 문제에 관여한다면 점점 더 얽힐 뿐입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겨야 하나님의 판단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헝그리 정신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에 처한 상황에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소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러한 최고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또 다시 음행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과 지혜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음행은 도덕적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습성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이성적 활동인 지혜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맥락마다 의미를 달리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지혜와 관련해서 음행에 대한 경계가 결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음녀는 남편이 있는 부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0절을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라고 청년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청년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음녀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대적 배경에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륜이 자행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단 한 번만 들켰더라도 죽을 수 있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상습적 음행이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들창문으로 목격을 한 예화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14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화목제는 특별히 남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과 어깨의 살은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상 그 고기를 이틀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삼일 째가 되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고기가 며칠 째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음행을 위한 만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적 습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독특하게도 지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선민들에게는 다섯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제사였습니다. 즉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화목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전 장까지는 계속해서 음행에 대한 경계가 나왔지만 그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라고 하였고, 5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6장 24절에서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이방여인과 음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음녀는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화목 제사를 드리는 선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로 연합되었으며,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던 마음의 공백이 채워졌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고백이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

고 있었기에 화목제 이후에는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진 마음의 상태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배부르면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유혹해서 끌어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화를 통해서 음행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내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에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만은 거부합니다. 화목제를 드린 여인은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도 청년을 끌어들이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음녀입니다.
이것은 선민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음행입니다. 이방인 음녀는 복음을 전해서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한 음녀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본문이 경계하는 바로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음녀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던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들은 존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대도시가 음녀의 상징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침 흘리고 갖고 싶어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집결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대도시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려고 경쟁에 뛰어들고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와 함께 음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들이 존재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음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음녀'는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자녀가 형통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로 음행을 계획하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어진 은혜의 산물로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에 제공하고 또한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음녀 중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서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성경이 경계하는 음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전제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 기뻐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교인의 숫자가 부흥해야 기뻐하는 목사, 교회의 예산으로 기뻐하는 목사, 예배당이 건축되어야만 만족하는 목사, 부자들이 많이 등록해야 기뻐하는 목사는 모두 음녀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교인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본문에서 음녀가 준비한 것들과 같습니다.
16~18절에서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있는 이불을 폈고 /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으므로 화목제의 고기로 만찬을 차립니다. 이렇게 음행의 여건을 만드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에 넘어간 '어리석은 청년'은 음녀가 제공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이 세상 가치로 기뻐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를 드렸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완결 짓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음녀들이 제공하는 기독교 복음을 듣고 음녀의 제안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음행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육체적 음행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를 언급함으로써 영적 간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음행들과는 주제가 다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고 배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세계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음녀의 제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애초에 기독교가 음녀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에도 기뻐할 자격이 없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면 이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기독교인과 복음을 수용한 자의 운명과 판단과 생각은 최고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없고 칭찬들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실패와 별 볼일 없고 빈곤한 처지도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는 사십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서른세 살의 나이에 야멸찰 정도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더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스데반 집

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행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서 궁극적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만족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후에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발동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끝나게 됨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됨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만사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나의 판단을 죽일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발동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도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최고의 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지혜로 인도를 받는 삶이 주어지는 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을 가질 때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십자가를 붙잡을 명분이 생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입술과 손끝에서 발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